

IT 부품/장비

산업이슈

2019. 10. 11

6년간 13.1조원...

News

삼성디스플레이, 13.1조원 투자 발표: 전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3.1조원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를 발표했다. 시설투자 10조원에 R&D 투자 3.1조원이고 문 대통령은 7년간 4,000억원의 정부 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Comment

관련 장비업체 주가는 급락: 금번 시설투자는 기존 8세대 LCD TV라인을 QD OLED TV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로 초기 3만장 규모의 Q1라인을 2021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13.1조원이라는 투자 규모는 신규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환투자만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전일 관련 장비, 소재업체 주가는 에스에프에이 -6.1%, AP시스템 -6.0%, HB테크놀로지 -7.1%, 아이씨디 -8.9%, 덕산네오룩스 -6.1% 수준 급락하였다.

Action

눈높이가 높았던 만큼 단기 조정은 불가피: 금번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기간을 감안 시 기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Q1라인 3만장 전환투자에는 2조원 중반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금번 투자 규모에 A5 신규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금번 전환투자 후에는 탕정에 더 이상의 LCD패널라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폴더블 스마트폰을 포함한 중소형 플렉서블 OLED패널 수요 증가 시 수요를 빠르게 대응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 중소형 플렉서블 OLED패널 수요 증가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신규라인의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A5 신규라인 증설 가시성이 높아질 때가 관련 장비, 소재 업체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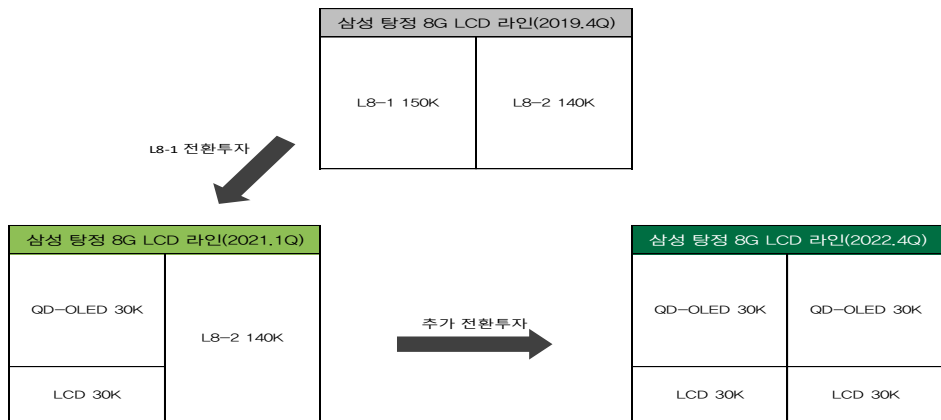
자료: DB금융투자, 언론자료

도표 2.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단지



자료: DB금융투자, 언론자료

도표 3. 삼성디스플레이 L8라인 QD OLED 전환 투자 전망



자료: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19-10-02 기준) - 매수(83.8%) 중립(16.2%) 매도(0.0%)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